

KOBAS 2016
REVIEW

지상파 방송사 전시부스

CBS

1954년에 개국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방송사로 60여 년 동안 라디오 매체를 통해 청취자와 함께해 온 CBS의 자산과 장점을 바탕으로 하여 '소리로 통하는 CBS'라는 주제로 전시관을 꾸몄다. 3개의 섹션으로 나누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미디어, 라디오' 섹션, '차세대 라디오' 섹션, 콘텐츠 홍보 섹션으로 나누어 전시하였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미디어, 라디오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취자와 밀접하게 소통해온 친밀한 미디어인 라디오의 과거 방송시설과 현재 방송시설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비교 체험해 보도록 하였다. 과거관에서는 릴테이프와 턴테이블을 보고 학생들은 신기해했으며, 어떤 분은 향수에 젖어 감동을 받고 갔다. 원형 테이블의 입체음향관은 라디오에서 11.1채널의 입체음향을 구현하여 청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라디오 청취자 신청곡 분석 데이터를 이용하여

CBS 청취자가 선정한 인기 음원 차트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주크박스를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밖에 IP 기반의 방송시설을 전시, 소개함으로써 차세대 방송 인프라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날로그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던 과거관



11.1채널로 구현된 입체음향관



나만의 선곡을! 주크박스관



이벤트 시간에 CBS 부스에 몰려든 KOBA 참관객들

차세대 라디오 라디오 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폰에서 FM 라디오를 수신하는 것과 하이브리드 라디오의 추진을 주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파로 FM 라디오를 들으면 스트리밍 라디오와 달리 데이터 사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으며, 인터넷이 끊어지는 재난 상황에서도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작업을 통해 여론을 환기시키고 방송사가 연대하여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라디오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인터뷰 중인 최영학 CBS 기술연구소장

콘텐츠 홍보 CBS TV, 라디오 매체를 통해 제작되는 콘텐츠를 홍보했으며, 특히 작년부터 시작한 CBS 시네마 사업과 개봉 영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했다. 또한 매시 정각부터 5분 동안 현재 방송관에서 CBS 음악FM 프로그램을 실제처럼 방송했다. 입체음향 소스를 11.1채널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재생하여 생생한 입체감과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미래 방송 환경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방송기술인 4,50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KOBETA)는 이번 KOBA 2016에서 크게 3개의 Zone으로 나누어 전시 부스를 제작했다.

PHOTO Zone에서는 24대 임기 내 주요 활동사진을 전시하여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주요 활동 및 사업을 관람객에게 알렸으며, 홍보 Zone에서는 KBS를 포함한 14개 회원사의 홍보영상을 재생하여 관람객에게 연합회원사를 소개하고 연합회의 역할을 홍보하였다. UHD Zone은 회원사에서 UHD 영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관람객에게 시연하였다.



EBS



2016년 EBS KOBA에서는 'Open your eyes with EBS UHD'라는 주제로 다가올 UHD 시대를 느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라디오프로그램 참여하기, VR 체험 등 체험을 통하여 시청자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UHD UHD Zone에서는 UHD 시대를 맞아 EBS에서 제작한 UHD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UHD가 송출되어 각 가정의 TV로 수신되기까지의 단계를 실제 구현하여 전시하였다.

육아학교 Pin 애플리케이션 “<생방송> 라이브 토크 부모” 프로그램 중 육아학교 Pin 어플을 통해 화상통화를 하며 육아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코너를 체험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생방송 화상통화뿐만 아니라 EBS 육아학교 Pin은 그동안 TV와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만날 수 있었던 육아전문가를 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VR 체험 EBS에서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교육에 관련된 VR 형태의 콘텐츠로 제작 중에 있다. 이번 KOBA에서 VR 체험을 마련하여, EBS에서 제작 중인 콘텐츠뿐만 아니라 다양한 VR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었다.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하기 EBS는 책 읽어주는 라디오, 외국어 라디오를 주제로 EBS만의 특성을 잘 살린 재미있는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편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KOBA 전시에서는 직접 라디오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진행하며 관객들과의 소통을 이끌어 큰 호응을 얻었다.



육아학교 Pin 애플리케이션



라디오 제작·송출솔루션



VR 체험

SBS



IoT - Insight over Technology SBS는 KOBA 부스의 주제를 '방송기술을 넘어서는 통찰력, IoT(Insight over Technology)'로 정하고 방송기술의 도약과 발전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UHD TV와 New Media 기술을 관객들과 함께 아늑한 환경에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었다.

UHD TV SBS는 UHD TV를 통해 방송 산업이 가져야 할 선순환 구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청자에게 보다 큰 사용자 편의성과 새로운 미디어 소비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UHD Second Screen - 집안 어디서나 즐기는 Wi-Fi UHD

지상파 UHD TV를 직접 수신하여 transcoding, 가정의 유무선 홈 네트워크를 통해 태블릿/스마트폰 등의 모바일 디바이스로 콘텐츠를 즐기는 기술이다. 본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UHD HDR - 더욱 짙하게 선명한 HDR

기존의 TV에서 표현 못하는 다이나믹레인을 확장하여 밝은 곳은 더욱 밝게 어두운 곳은 더욱 어둡게 표현 가능한 기술이다. 영상의 디테일을 더욱 잘 살려서 보다 실감 방송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TSC 3.0 기반 실시간 타겟 광고 - UHD는 광고도 골라보는 재미

ATSC 3.0에 기술표준화 된 기능으로 선호 카탈로그에 따라 hybrid 망을 통해 타겟 광고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시청자가 남성이라면 그에 걸맞은 광고를 보여주어 광고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New Media TV를 통해 ON-AIR 콘텐츠를 즐기는 환경에서 벗어나 콘텐츠 유저의 다양한 니즈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한 다채로운 기술의 발전을 엿볼 수 있었다.

·MASIC 2.0 - 자막제거는 기본, 외국어 자동자막까지

영상 DNA 분석기술로 최종 방송 영상과 자막이 제거된 클린영상을 매칭하는 기술로, Image Matching 기술을 적용하여 CG 자막의 TC를 추출하여 자산화 가능하고, 다국어 자막 영상 자동제작 및 협찬자막 교체도 가능해졌다.

·Mobidic - Mobile의 바다에서 건져 올린 콘텐츠

TV를 넘어서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을 선사할 SBS 새로운 플랫폼을 소개하였다.

·동영상 포털 - SBS 콘텐츠를 더욱 풍부한 메타데이터

방송콘텐츠를 장면 단위의 메타데이터로 아카이빙하여 서비스 이용자가 자유롭게 메타데이터에 접근하여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창구가 될 것이다.

·Live VR

그동안 SBS가 제작한 VR 콘텐츠를 즐길 수 있었으며 부스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LIVE로 VR을 경험하는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KBS



KBS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가 요구하는 콘텐츠, 유료방송과 상업 방송이 제공할 수 없는 보편적 공익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가오는 UHD TV 방송을 선도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KOBA 2016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 부문 'ATSC 3.0 기반의 지상파 4K UHD TV 방송 서비스 On-Air 시연', 시청 중인 TV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계된 서비스를 스마트 기기와 연결해 SNS로 공유할 수 있는 'TVut 시청자 참여 서비스', 시청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화상 통화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폰 방송 시스템',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에 필요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수신 안내 서비스' 등을 만나볼 수 있었다.

공적 책무 부문 국산 방송 장비 산업의 활성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2015년부터 운영 중인 'KBS 방송장비인증센터'는 Lab 기반의 표준 규격 인증과 필드 테스트를 통한 현장 적합성 시험을 모두 시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방송 장비 인증센터다. 한편, UHD KOREA에서는 전용 부스 운영을 통해 TV 수상기에 안테나를 내장함으로써 지상파 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된 시청자 상담이나 홍보 등을 관람객에게 소개했다.

모바일 부문 KBS가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플랫폼을 전시하였다. KBS가 서비스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PC, 모바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KBS만의 독자적인 N스크린 플랫폼인 'my K'와 라디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공'을 선보였다.

체험 부문 올해 KOBA에서는 KBS에서 자체 제작한 4K 콘텐츠를 150인치 대형 스크린에 상영하는 '4K 영화관'을 운영해 4K 영상의 생생한 감동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KBS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임장감 높은 10.2채널 오디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MBC

KOBA 2016에서 MBC는 UHD Zone, 방송기술연구 Zone, VR Zone, MBC World Zone으로 구성하여 MBC의 앞선 기술력과 뛰어난 콘텐츠를 선보였다.



UHD Zone ATSC 3.0 및 부가서비스, HDR 콘텐츠를 시연해 보였는데, ATSC 3.0 기반 지상파 UHD 송수신 풀체인 시스템을 전시하여 2017년 2월 지상파 UHD 본방송 기술가능성을 증명했다. 또한 Advanced EPG 등 UHD를 직접 수신할 때 얻게 되는 새로운 서비스도 홍보했다. 한편 MBC UHD 콘텐츠(HDR)를 일반 SDR 콘텐츠와 비교하는 전시를 통해 HDR의 실감효과 우수성을 강조했다.



방송기술연구 Zone MBC 기술연구소가 자체 개발한 UHD용 비디오 서버인 <eXerver UHD>를 홍보하고 <DAMS Web 3.0>을 통해 HTML5가 적용된 DAMS Web 3.0 및 다년간 축적한 아카이브 시스템을 소개했다. 또한 “듀엣가요제” 추석 파일럿에 ‘터치 MBC’의 이름으로 최초 적용한 <실시간 시청자 참여 솔루션>을 선보였다.



MBC VR Zone 4D 라이딩 VR, 실감 오디오 VR을 통해 실감 콘텐츠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360도 VR 생중계 시연을 통해 관련 기술력 및 우수 VR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KOBA 2016에서는 무한도전 Expo에서 선보인 무한도전 VR을 비롯해 4D 라이딩 체험을 겸할 수 있는 불국사 VR, 실감오디오를 체험할 수 있는 곤충 VR, 화제의 드라마 옥중화 메이킹 VR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했다.

MBC World Zone 홀로그램 쇼케이스 체험 및 ‘우리결혼했어요’ 스타 합성 사진 촬영, MBC 브랜드스토어 전시가 이루어졌다. MBC World는 대한민국 방송사 최초 방송테마파크로 그동안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기반으로만 만날 수 있었던 MBC 콘텐츠를 생생하고 입체적인 홀로그램, VR, AR 등 다양한 실감형 콘텐츠로 즐길 수 있게 했다.